

LEE
TAE
WON

이태원길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활성화 토론회

2020. 12. 15. TUE. 14:00~16:00

어울아트센터 함지홀

| 주최 / 주관 |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광역시북구
DAEGU-GU DISTRICT, DAEGU CITY



행복북구문화재단
HEUNGBUK-GU CULTURAL FOUNDATION

LEE
TAE
WON

이태원길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활성화 토론회

2020. 12. 15. TUE. 14:00~16:00

어울아트센터 함지홀

| 주최 / 주관 |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광역시북구
DAEGU-GU DISTRICT, DAEGU CITY



행복북구문화재단
HEUNGBOOK-GU CULTURAL FOUNDATION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활성화 토론회

PROGRAM

구분	내용
발 제	정 책 제 안 '같이'의 가치 실현을 통한 '이태원길' 활성화 방안 - 이 재 민 연구위원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사례발표 1 도시의 틈 찾기, 만들기 - 청년문화를 통한 장소만들기 - 김 건 우 대표 / 재미난 복수 (문화활동가)
	사례발표 2 청년상인, 말하다. - 양 재 필 대표 / 오!미자네 (청년상인)
토 론	좌 장 오 동 욱 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청 년 정 책 박 종 달 국 장 / 문화체육관광부
	청 년 정 책 김 영 현 원 장 / 지역문화진흥원
	청 년 문 화 육 주 원 교 수 / 경북대학교
	청 년 예 술 유 슬 아 대 표 / 예술전진기지 별들의 은하
	청 년 대 표 전 지 혜 대 표 / 반디협동조합 (경북대학교)
	지 역 연 론 소 병 운 대 표 / 팔공신문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정책 제안

'같이'의 가치 실현을 통한 '이태원길' 활성화 방안

- 이 재 민 연구위원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같이’의 가치 실현을 통한 ‘문화예술거리 이태원 길’ 활성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문화정책)

이재민



CONTENTS

I. 이태원 길의 어귀에서

II. 이태원을 만나다

III. 이태원 길을 걸으면서

IV. 이태원 길을 나오면서

I . 이태원 길의 어귀에서

1. 이태원 길의 조성 배경과 목적

1. 문화 거리의 조성 배경 및 목적

● 관광형태의 변화 및 다양화

- 문화를 직접 체험·경험하는 형태의 문화관광 형태로 변화
- 지역문화를 이해와 경험 → 그것의 가치를 습득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 지역의 특수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 지역문화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지역성·장소성을 정립

1. 이태원 길의 조성 배경과 목적

● 지역문화콘텐츠로서 문화거리의 조성

- 지역문화콘텐츠로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 조성
 - 테마파크, 전통시장을 활용, 생가 복원, 문화마을 등
- 일상 공간(골목·마을·시장)을 문화예술 등의 테마와 결합
 - 지역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현'

● 대구 복구의 문화적 완성을 위한 단초로서 '이태원 길'

- 대구 복구에서 태어난 천재 소설가, 이태원의 테마를 활용한 문화예술 거리
- 이태원 길을 시작으로 문화적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복구 사람의 자긍심

→ 문화적 삶의 질적 제고

5

II. 이태원을 만나다

1. 북구가 배출한 천재 소설가, 이태원

● 북구 읍내동 출생 (1942년), 우리 고장이 배출한 소설가

- 칠곡초등학교(1955년), 경북중학교(1958년), 경북고등학교(1961년) 졸업

● 동아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객사》가 당선

- 국립 극단과 방송 3사(KBS, MBC, TBC)에서 특집극으로 방영

● 문학작품 활동 외에도 민주화를 위한 노력

- 고은, 황석영 등과 같이 자유실천 문인협회에 가입

● 주요 작품으로는 《개국》, 《초야》, 《낙동강》 등이 있음

7

2. 또 하나의 현실이었던 《객사》

● 칠곡향교와 객사를 배경으로 일제치하의 핍박과 수탈의 현실을 현미경 처럼 묘사한 작품


- 천민출신의 향교직이와 묵수 소작농들이 소설의 주인공
- 일제의 수탈과 핍박,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상황
- 신사의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뚫뚫뚫쳐 맞서는 모습



8

● 소설 《객사》에 나오는 지명

- 행고마(향교가 있는 마을) 학정골, 조피골, 팔거들판, 팔거천, 파계사, 남창골 등
- 칠곡의 지명들이 정겹게 소설 속에 녹아서 치열한 삶을 사는 주민들의 모습을 상상

- 
- 작가 ‘이태원’의 삶과 문학작품을 문화적 소재로 면밀한 활용
 - 기층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
 - 단순한 추모 보다는 ‘객사’에서 언급된 공간을 현실에서 느껴보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공감하는 거리

9

Ⅲ. 이태원길을 걸으면서

1. 이태원 길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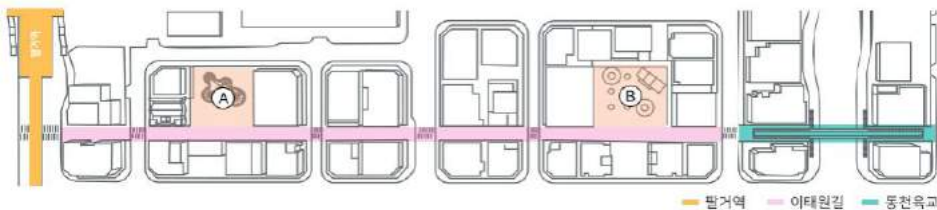
● 소설 이태원의 삶과 문학 작품이 있는 거리

>>> 복구의 대표거리, 관광자원으로 육성

● 이태원 ‘문학관’, ‘책사’ 를 각색한 거리극 등

- 다양한 초청공연, 예술장터 등의 콘텐츠로 구성
→ 시민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함

● 팔거역 ~ 동천육교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



2. 이태원 길, 콘텐츠 구성

● 이태원 문학관

- 이태원 광장 내 노란색 컨테이너의 모습
- 소설가 이태원의 생애와 문학 연대기, 작품, 개인 소장품을 볼 수 있음
- 1981년 ‘개국’을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가 상시 상영되는 ‘영상관’이 있음
- 이태원 작가의 유족들이 기증한 유품, 이기원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전시



12

● 팔거광장

- 공연과 예술 장터로 활용
- 클래식, 국악, 인디밴드, 무용, 대중음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역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초청 공연이 진행
- 다양한 수공예 아트상품 판매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토요문화골목시장



13

Ⅳ. 이태원 길을 나오면서

1. 비전 및 목표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 문화도시로 가는 길!

15

2. '문화도시'로 가는 길

이름(Naming)의 가치

- '이태원 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
 - 서울 이태원을 인식하는 사람이 대다수
- 이름이 가지는 가치: 몸짓 → 눈짓
-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이 필요
 - 김광석 거리의 사례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16

● 실천주체로서 거버넌스의 가치

- 예술은 창조 / 문화는 '조성(형성)'
→ 문화예술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만드는 문화가 더 중요
- 문화의 본질은 '인간'을 키우는 것
- 거리의 공간에서 '시민'의 양성부터
→ 거리를 매개로 복구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시민주도 활동으로 도시의 문화를 형성(조성)
- 시민참여 → 민관협력의 선순환 체계 → 민관이 주도
→ 우리가 함께 하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

17

● '문화'의 가치

- 文化 - 무늬를 그린다
- 사람들 간 소통하고 자라나는 문화
- 연대의식, 인과 예 → 공동체 의식
- 칠곡 3지구 APT 밀집 지구
- APT에서도 공동체 활동 (※ 칠곡인문학마을)
-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콘텐츠
- 팝업스토어 : 시험 삼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 여성친화도시 로서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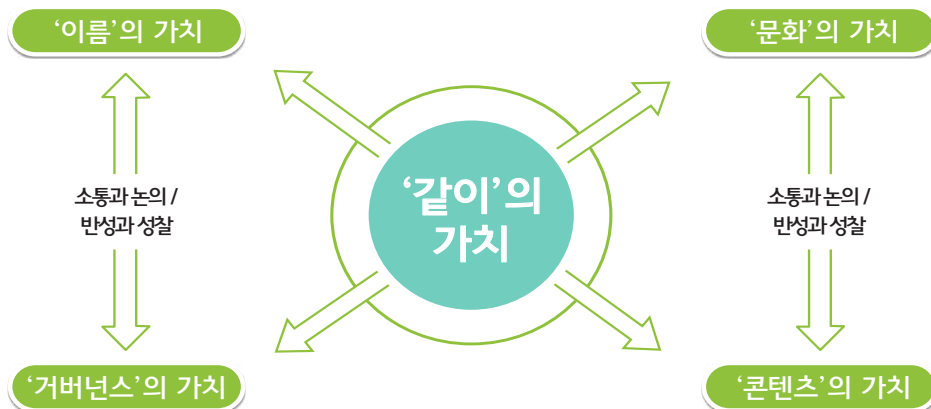
18

문화콘텐츠의 집중을 통한 확산의 가치

- ‘거리극’ 중심의 문화예술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대구 북구만의 ‘거리극’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기획이 필요



19



20

감사합니다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culture@dsi.re.kr

memo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사례발표 1

도시의 틈 찾기, 만들기
: 청년문화를 통한 장소만들기

- 김 건 우 대표 / 재미난 복수 (문화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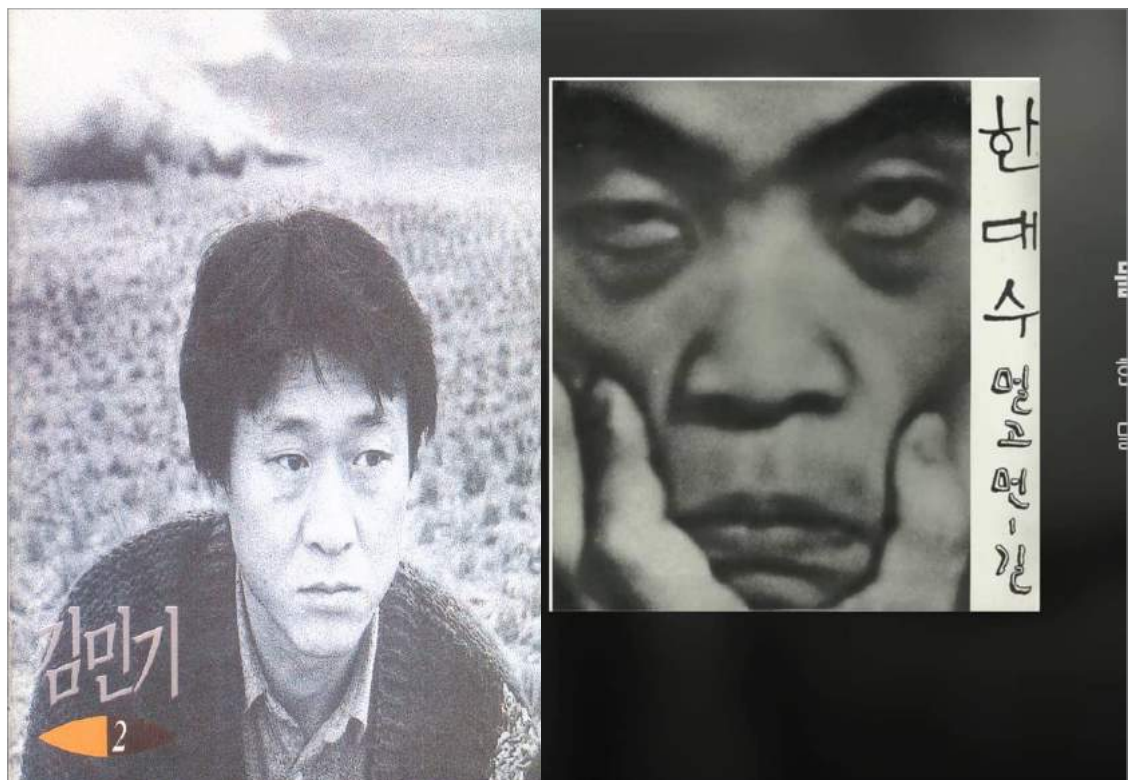
프로필	성 명	김건우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	
2003~현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창립, 현 대표	
2003~2011	거리축제 '재미난 복수' 27회차 진행	
2008~2014	독립문화공간 AGIT 설립, 대표	
2008~2012	다원예술매개공간 프로그램 운영	
2011~현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2011~현	ZERO Festival 총감독	
2012~현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2014~현	- 문화 공간 설립 및 운영 - ● 장전동 장성시장 일대-B Gallery, B House(아티스트 입주 시설), B Hall, B Office ● 오륜동 창장공간 설립(2018)-B Spac	
	문화가 있는 날 '재장전 프로젝트',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지원사업 '장성한 친구들',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조성 사업 '장독대' 총감독	
	2017 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위원장	
2018~현	륜 스페이스 설립	
2019	국토부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재미난복수 대표	
2020	중소벤처 기업부로컬크리에이터(하이퍼 로컬), lh 소셜벤처(륜 플레이그라운드), 레지던스 사업 (메이크 어 시그널) 등 총괄 감독	
논문 발표 실적		
2020	생태/예술/기술 커뮤니티빌리지 구축에 관한 연구 책임 연구	
2019	청년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재생 연계방안	
학 력 사 항		
2006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기 타 활 동		
2011	부산일보 '문화비평단편' 12회 연재	
2017	부산일보 '책에서 찾은 길' 연재	
2017	인터넷 방송 취중집담 6개월 진행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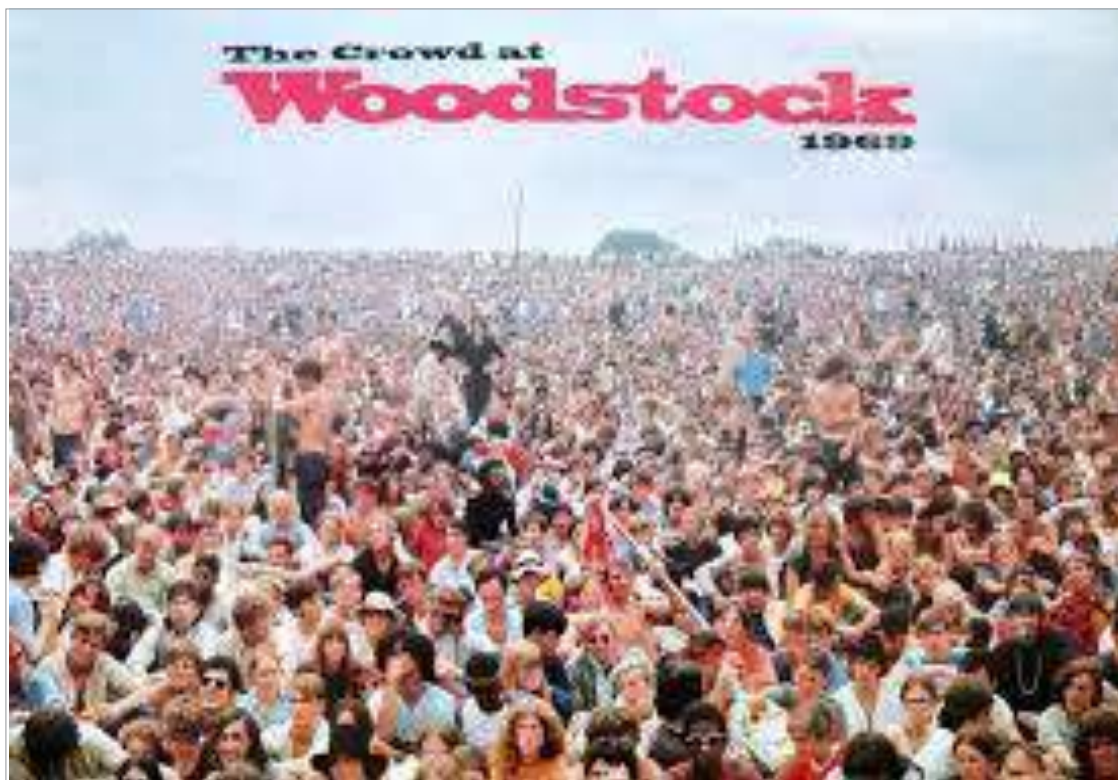
동네 친구들과 하고 싶은 거 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자신의 취향을 찾고 뜻대로 살길 바란다. 그래서 혹여나 '보통'의 삶과는 다를 지라도 다른이의 취향을 존중하고 각각의 다양한 색깔이 빛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

정치, 경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은 친구와 함께, 동네와 함께, 사회와 함께 있다.







사회	문화	예술	공간	도시
소수 비주류 자율, 자치 다중 공동체 엑티비즘 아나키즘 국제교류 문화다양성 세렌디피티	서브컬처 / 하위문화 / 대안문화 / 소수문화 / 저항문화 / 저변문화 / 청년문화 / 반문화 / 독립 / 인디 / 자립 / 언더그라운드 / 거리문 화 / 매니아문화 / 힙 스터문화 / 히피 / 반 전 / 펑크 / 힙스터 / 레이브 / 문화생태계 / 페스티벌	다원 복합, 융합 탈장르 컨템포러리 포스트모던 커뮤니티 아방가르드 스트리트아트 퍼블릭아트 헤프닝 아마추어리즘 즉흥 퍼포먼스	대안공간 거리, 광장 공유, 연결성 예술실험 레지던스 매개, 네트워크 문화거점 지역문화센터 창작-인큐베이 팅 틈, 사이공간 시간성, 역사성 장소성	유희공간 유희시설 스콧 어메니티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 도시재생 생태, 환경 라이프스타일 젠트리피케이 션

● ■ 청년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 ▶ 4~5년 전쯤 부산에서는 '청년문화'라는 개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 2~3년 전 즈음 부터는 유행처럼 이 개념이 쓰이기 시작.
- ▶ 70/80년대 저항문화의 일부로 자리 했던 '청년문화'를 바라보던 시각과 기대가 반영된 개념.(청년문화 주체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도권 근처에 있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이름 붙여진 개념)
- ▶ '주로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
- 나이나 장르적 차이로 청년문화와 비청년문화를 나눌 수 없다.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 필요 하다.
- 젊은**: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모색하며 움직이는 집단.
- 비주류 문화**: 주류문화(획일, 일방향, 소비, 스타중심)에 대한 거부와 반성으로 시작하는 대안적 움직임.
- 주류 혹은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발견, 확장 시켜 나가는 문화적 실천.

- 누가 만드는 문화인가? 민중/대중/다중
- 청년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체와 대상은 피지배 계급으로 억압, 착취 받는 삶을 극복하고자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민중(民衆)”과 다르다. 또한 수동적, 비합리적 요소를 민중의 개념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중(大衆)”과도 다르다.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행동하지만, 특정 사안에 동의할 때 자율적이며 유연한 집합으로 행동 가능한 “다중(多衆)”에 의한 문화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지속가능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조건

서울 및 경기도 20세 이상 성인 대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조건에서 지역성의 부분은 사회적 지위, 공동의 관심 등으로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동네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또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희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성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족은 주거환경이 스스로 변화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족성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환경의 경우에는 베드타운화 될 수 있어 그 지역의 활성화 및 거주자간 지속적 관계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Target 분석

지역성

지역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인지를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도시

- 역사문화성
- 지역정체성
- 지역의 동질성

공동체성

주인이 공간이나 시설의 사용을 통해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 사회통합환경 (계층의 통합)
-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그램
-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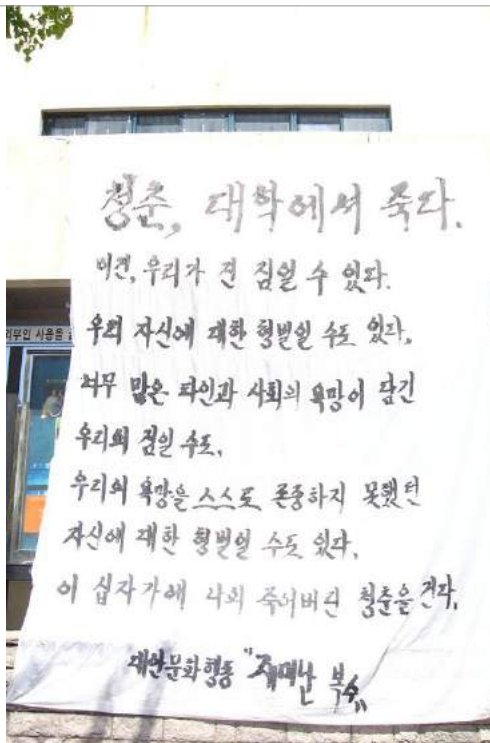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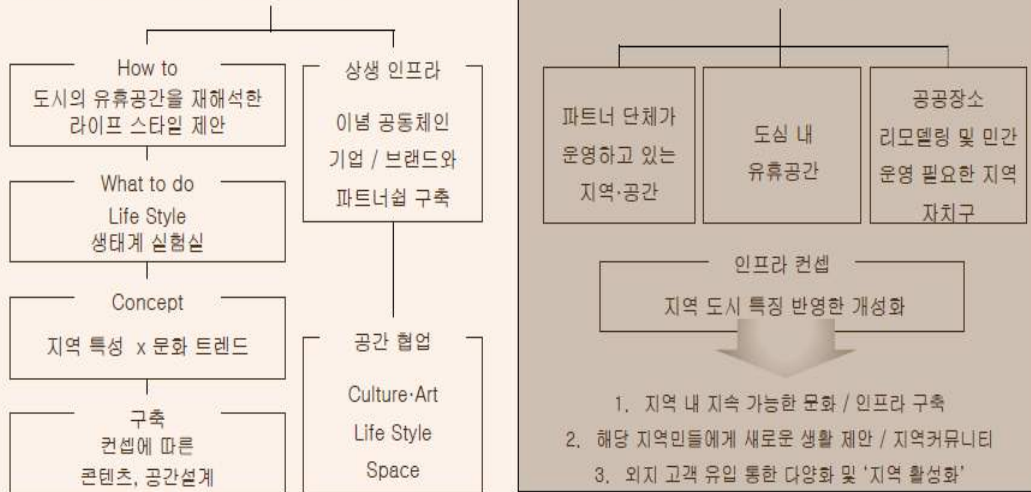
유기체성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특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

- 고용
- 자족
- 복지
- 인구
- 안전
- 주거

출처 : 논문 / 2016.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 신화경 조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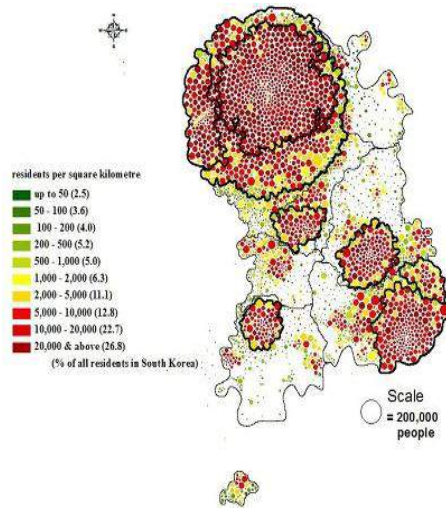
매력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FUNNY REV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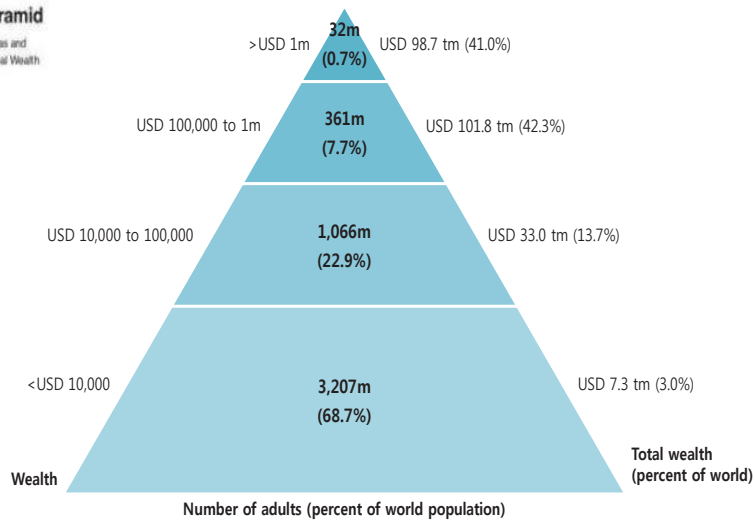


人口 分布圖



The global wealth pyra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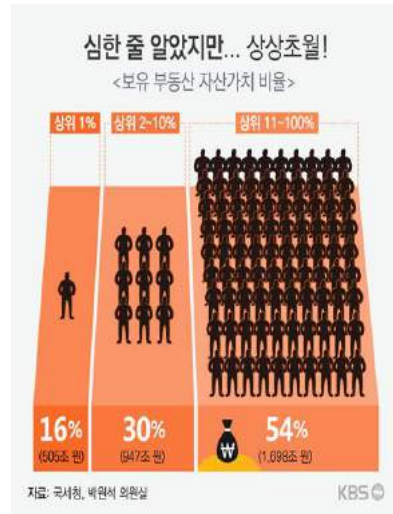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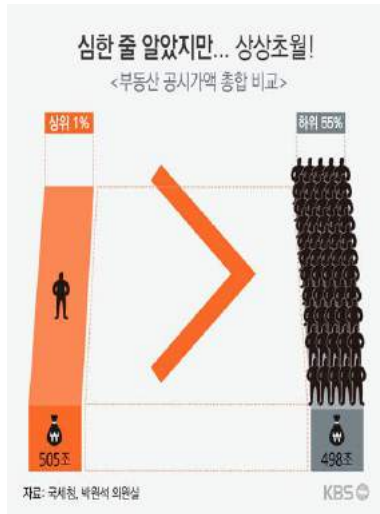
Source: James Davies, Rodrigo Lluberas and Anthony Shorrocks,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3



상위 0.7%가 세계 전체 부의 41%

하위 68.7%가 세계 전체 부의 3%

상위 85명의 부 = 하위 35,000,000,000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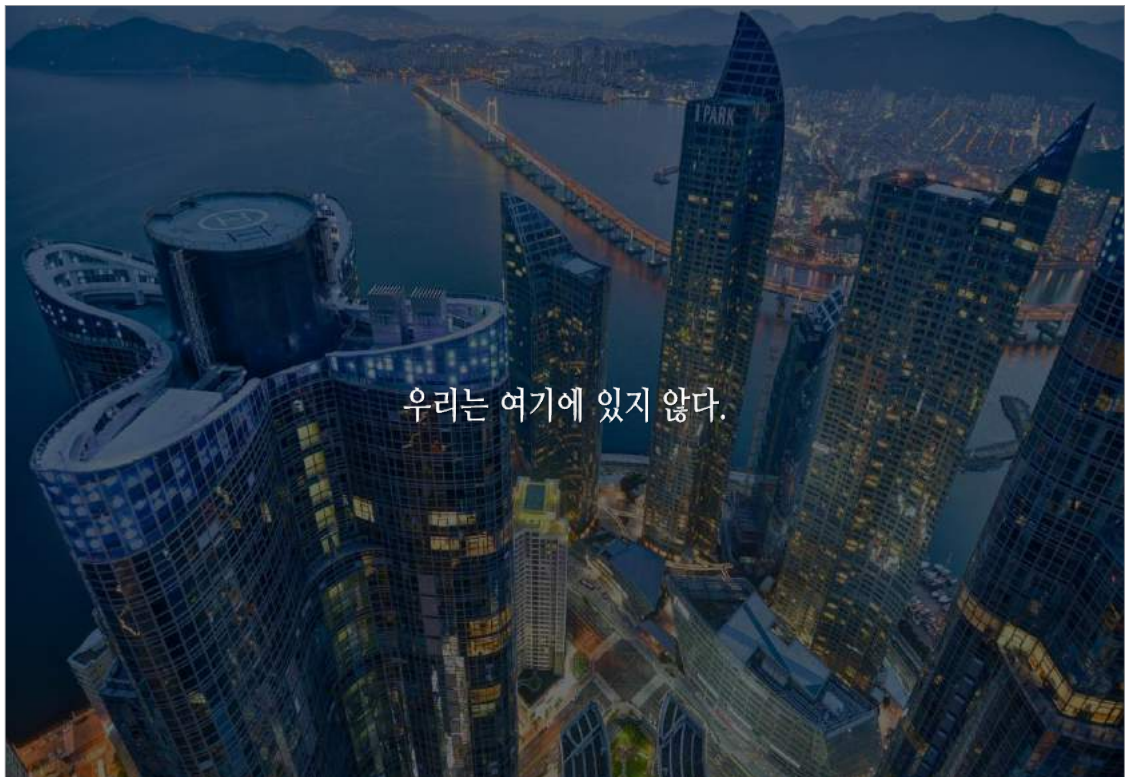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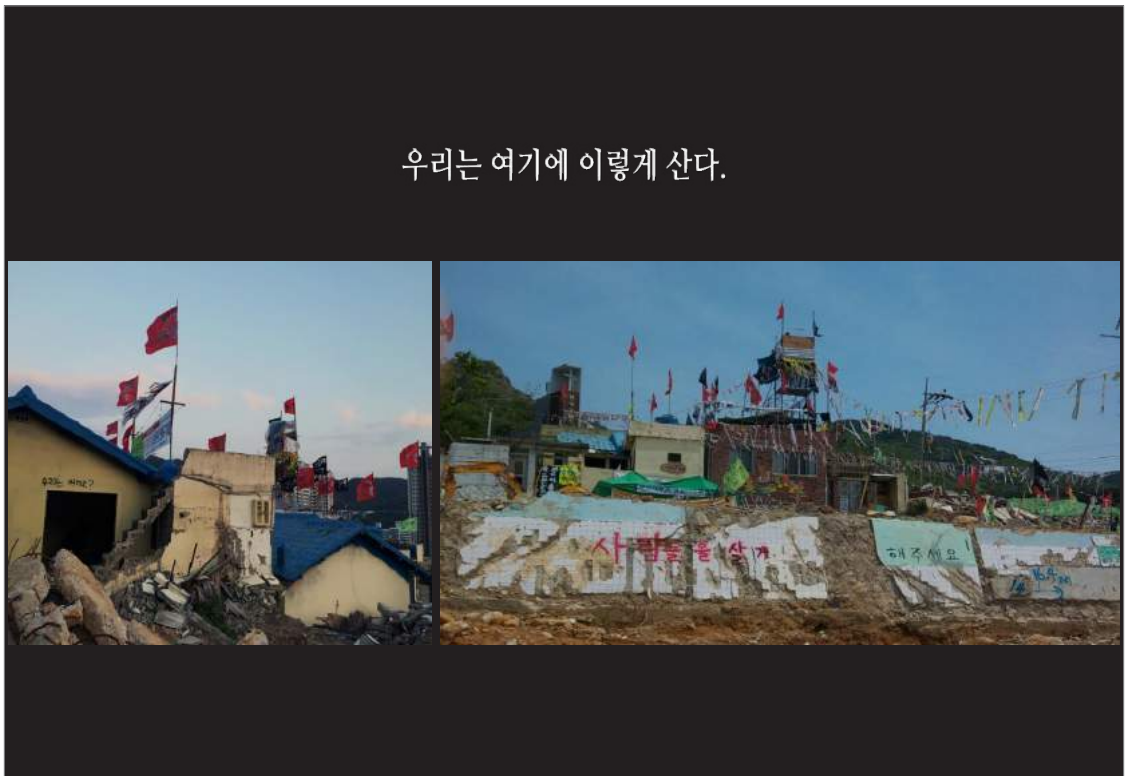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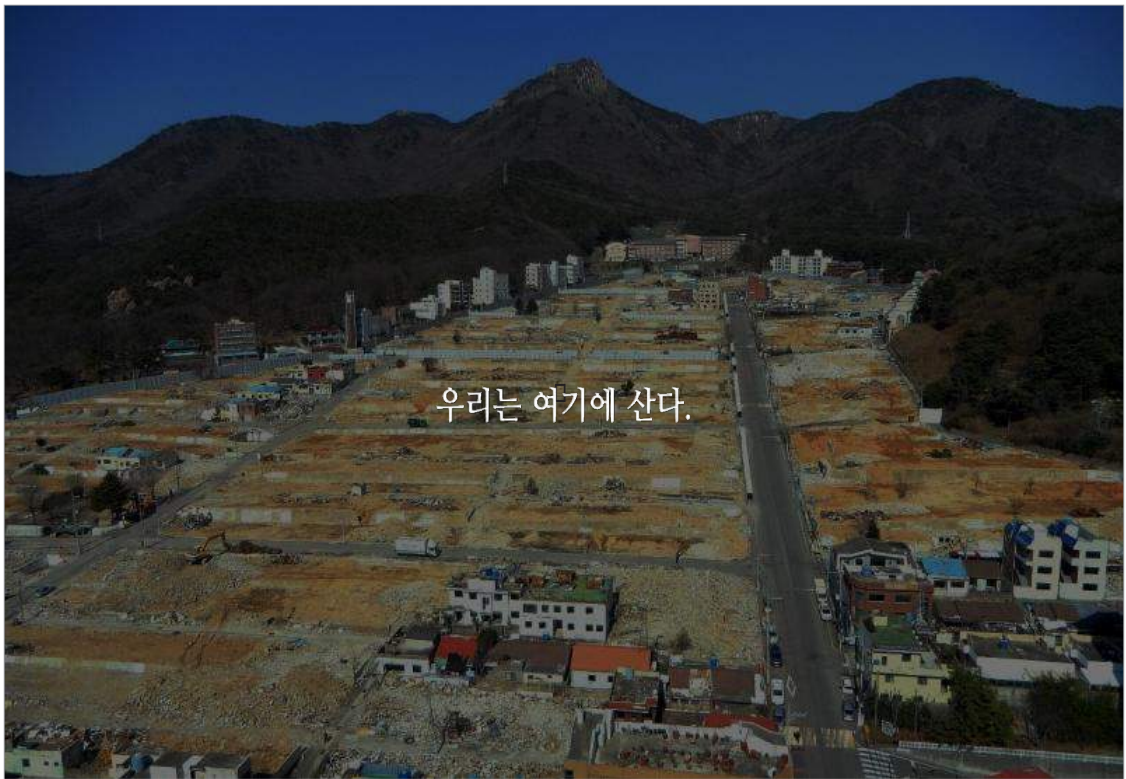
상위 20%가 전체 부의 94%

상위 1%가 전체 부의 48%

-2014 OXFAM

부동산 상위 1%가 하위 55%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보다 많음.





우리는 여기서 살고자 했다.



재미난복수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는 2003년 창립하여 청년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 전시, 퍼포먼스를 기획 진행하는 단체다.

2008년~2014년 독립문화공간 AgIT설립 운영, 2015년부터 부산대학교 인근의(장전동) 시장 등으로 공간을 이전, 확장하여 창작공간을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거점을 확장하여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에 위치한 버섯농장 창고에 새로운 복합 문화 창작, 발표 시설을 만든다.

이 활동을 통해 청년문화 창작자(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술가들선으로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Philosophy

0 = ≠ 3

- 0(Zero)** 문화의 계승을 허물고 예술과 삶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0에서부터 시작한다.
- =(Equal)** 스스로 즐길 권리, 스스로를 위해 저항 할 권리, '평등'을 지향한다.
- ≠(Difference)** 작은 것, 낮은 곳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다름'의 모습을 그린다.
- 3(Exist)** 존재'에 대한 성찰을 공간에 담아 서로의 생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거점을 만든다.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주요 프로젝트 진행 (History)

- 2003.08 - 2014.05 (매월) 부산대 앞 대학로 거리축제 '재미난복수'
- 2004.06 - 2004.10 (매월) 재미난 기행
- 2008 - 2013 독립문화공간 AgIT 설립 및 운영
- 2011 독립예술제 선인장
- 2012 - 현재 도심속 대안예술제 ZERO Festival
- 2014 - 현재 장성시장 인근 문화 / 창업 공간 / 8개소 설립 / 4개소 직접 운영
- 2011 - 현재 창작공간 활성화사업 국제 레지던스 / 부산문화재단
- 2016 - 현재 청년창조발전소 / 부산시
- 2016 - 2018 문화가 있는날 재창조프로젝트 / 문화가 있는날 추진단
- 2018 오륜동 Ryun Studio 설립



우리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재미 F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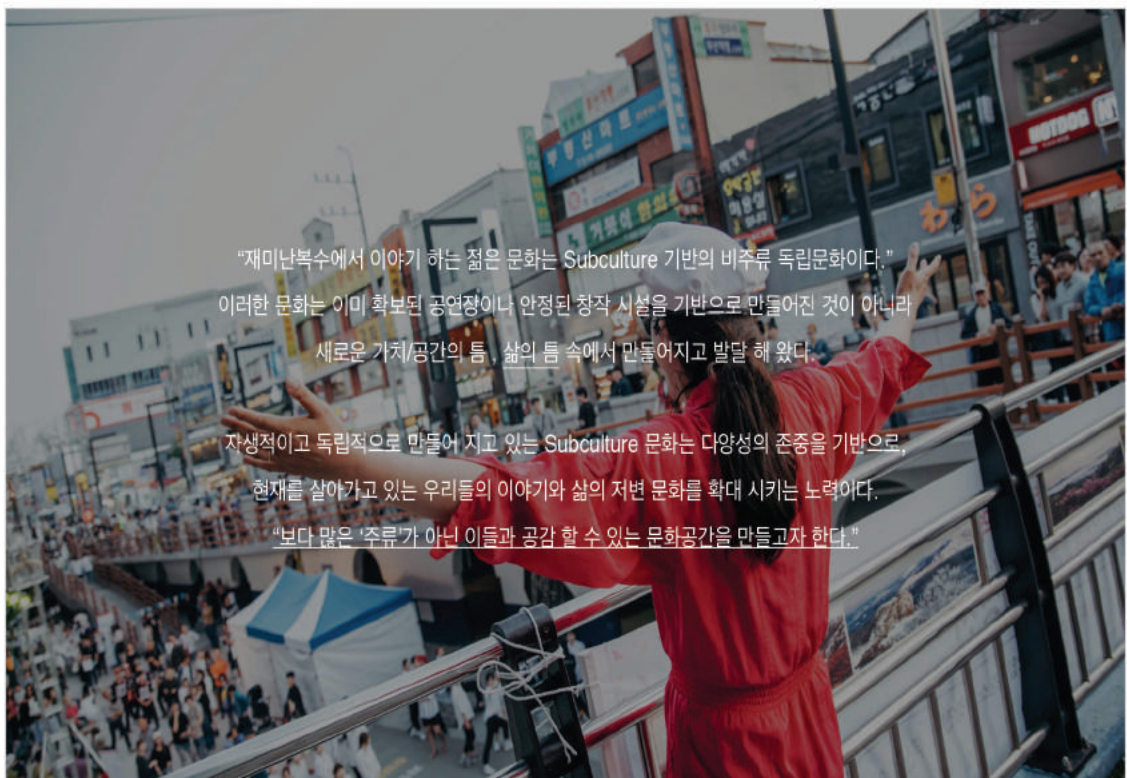
평화 PEACE

다양성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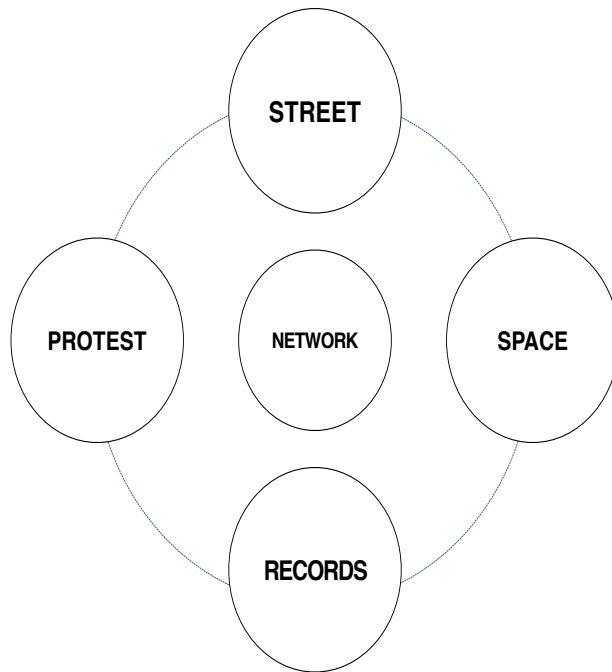
전략 STRATEGY

상상력 IMAGINATION

연대 SOLIDARITY



“재미난복수에서 이야기 하는 젊은 문화는 Subculture 기반의 비주류 독립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이미 확보된 공연장이나 안정된 창작 시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공간의 틈, 삶의 틈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달 해 왔다.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Subculture 문화는 다양성의 존중을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삶의 저변 문화를 확대 시키는 노력이다.
“보다 많은 ‘주류’가 아닌 이들과 공감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STREET

다양성과 상상력으로 거리를 점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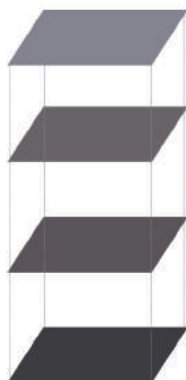


SPACE

지역성, 자율성, 확장성을 기반한 거점 만들기

2008~2014

AGIT



2F - VISUAL ART STUDIO
GALLERY

1F - CAFE, RESIDENCE ROOM
RECORDING STUDIO, OFFIC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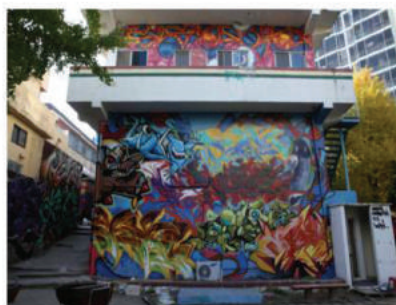
B1F - MUSIC STUDIO
- GARDEN
- POOL

SINCE 2008-2014

AGIT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GALLERY



RECORDING STUDIO



ART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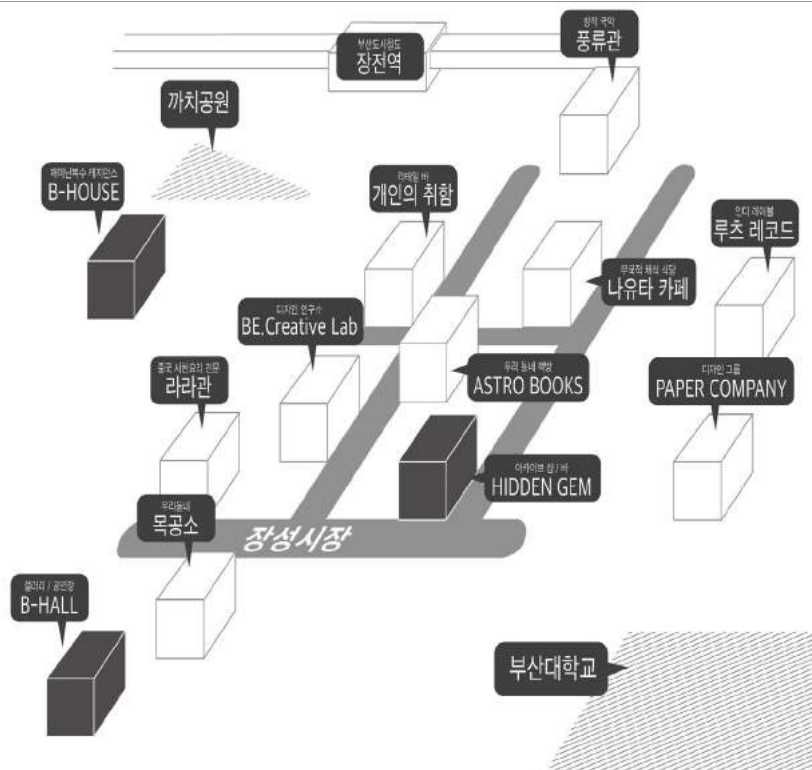
MUSIC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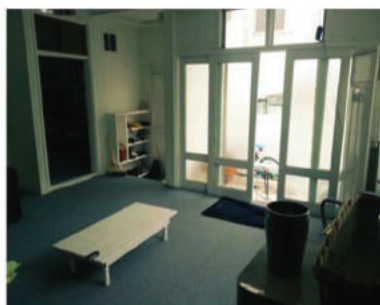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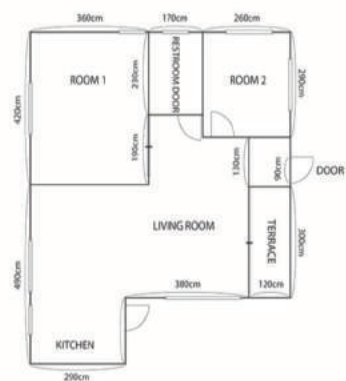
GUES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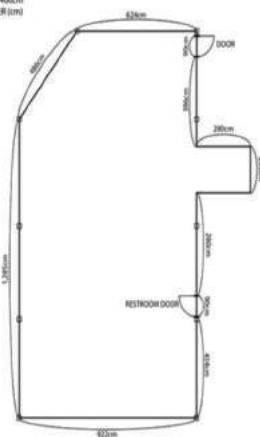
2013 ~



B HOUSE	/	1
ROOFTOP	/	2
WARE HOUSE	/	-1
HEIGHT	/	280cm
SIZE / CENTIMETER (cm)		



B HALL	/-1
RESTROOM	/ 1
HEIGHT	/ 400cm
SIZE / CENTIMETER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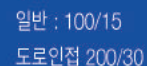


Unpredict-able



41 PEOPLE WHO GR1 MET







2015

예술가들에 이어 청년상인들과
함께 자생적으로 성장.

거의 빈 점포 없음

매매가 (1.5배 인상)

10평 기준 : 5,000만원

도로인접 : 6,000만원

월세 (동일 - 계약 미완료)

일반 : 100/15

도로인접 200/30

전국 각지에서 구경오는 핫플?

많은 언론에 노출, 타 지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견학 인구 급증.

투기 자본이 진입하기 시작 하면서 **매매가, 임대료 급상승.**

시장 되살린 청년들 이번엔 임대료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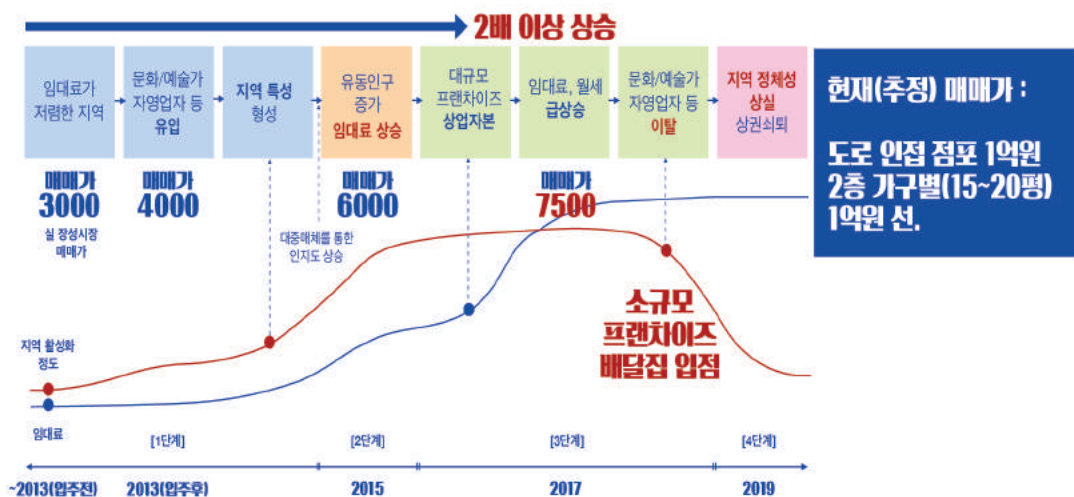
입력: 2018-04-25 19:06:41 수정: 2018-04-26 11:21:54 게재: 2018-04-25 19:56:30 (10면)



2019/ 기존 점포는 이전하고, 소규모 배달 프랜차이즈 입점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모델에 따른 실제 장성시장 적용 그래프





도시의 문제는 도시에서 풀어야 한다.

사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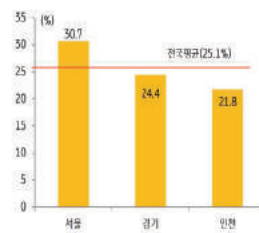
가장 높은 학력과 부를 가졌다 이야기 하지만, 꿈을 꿀 수 없는 '밀레니얼 세대'

-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순된 상황
- 사회진출시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로 비춰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n포세대, 88만원세대 등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자조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일본 사토리 세대, 중국 단신거우(單身狗) 세대 등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낮은 경제력과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청년 1 인가구 임대차 시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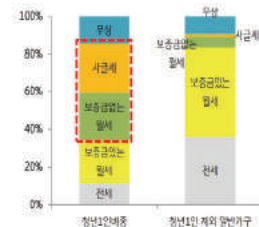
-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이유로 자가비중이 낮으며, 임차시 보증금 조차 없는 월세를 통해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
- 2015년 1인가구의 월 가치분소득은 14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는 36만원으로 가치분소득의 25%를 주거비용으로 사용
-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33㎡이하의 소형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를 이용하여 산출
- 임대료가 높은 서울의 경우는 가치분소득 임대료 비중이 30% 이상까지 높아짐

[그림 3] 1인가구 가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자료: 통계청, 부동산114(2015)

[그림 4] 자가를 제외한 청년1인가구의 점유유형



주: 청년 1인가구는 45세 이하의 1인가구로 설정

자료: 통계청(2015)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함을

친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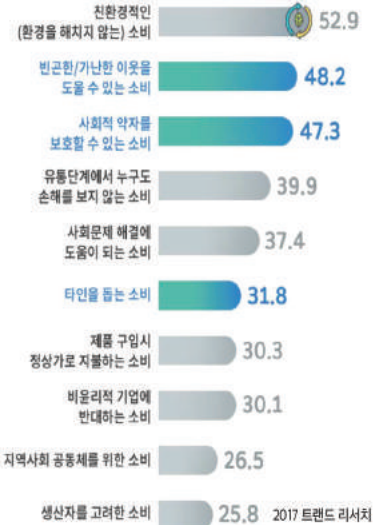
- '그린 컨슈머리즘'의 부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새로운 소비의 주력으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따져 소비를 결정 할 것인가?
 - 베이비부머 (54세 - 64세) 46%
 - X세대 (36세 - 54세) 55%
 - 밀레니얼세대 (22세-35세) 61%

- 글로벌 웹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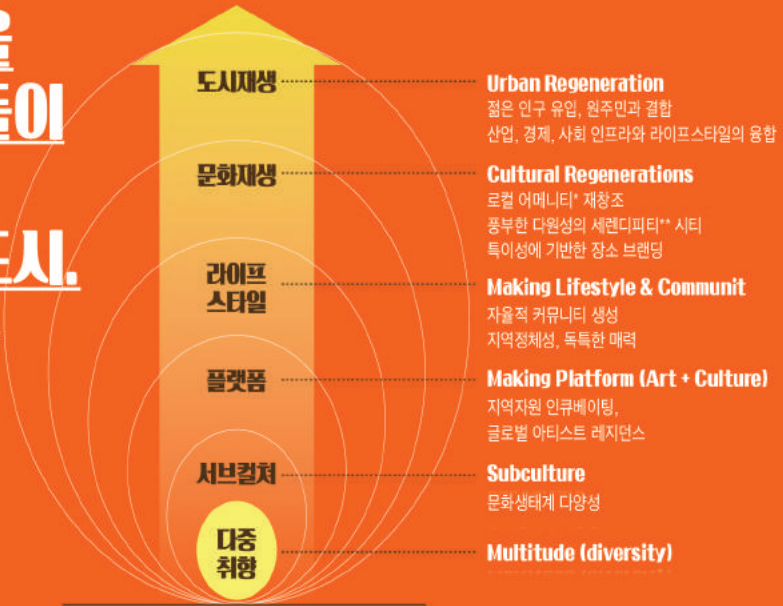
- 친환경 소비는 '하면 좋은 것' 혹은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 2019 트렌드 코리아

-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소비에의 관심 증대
- 역세권 대신 '숲세권'... 도심 떠나 숲을 찾는 사람들 [KBS뉴스] 2018.03.12



다중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성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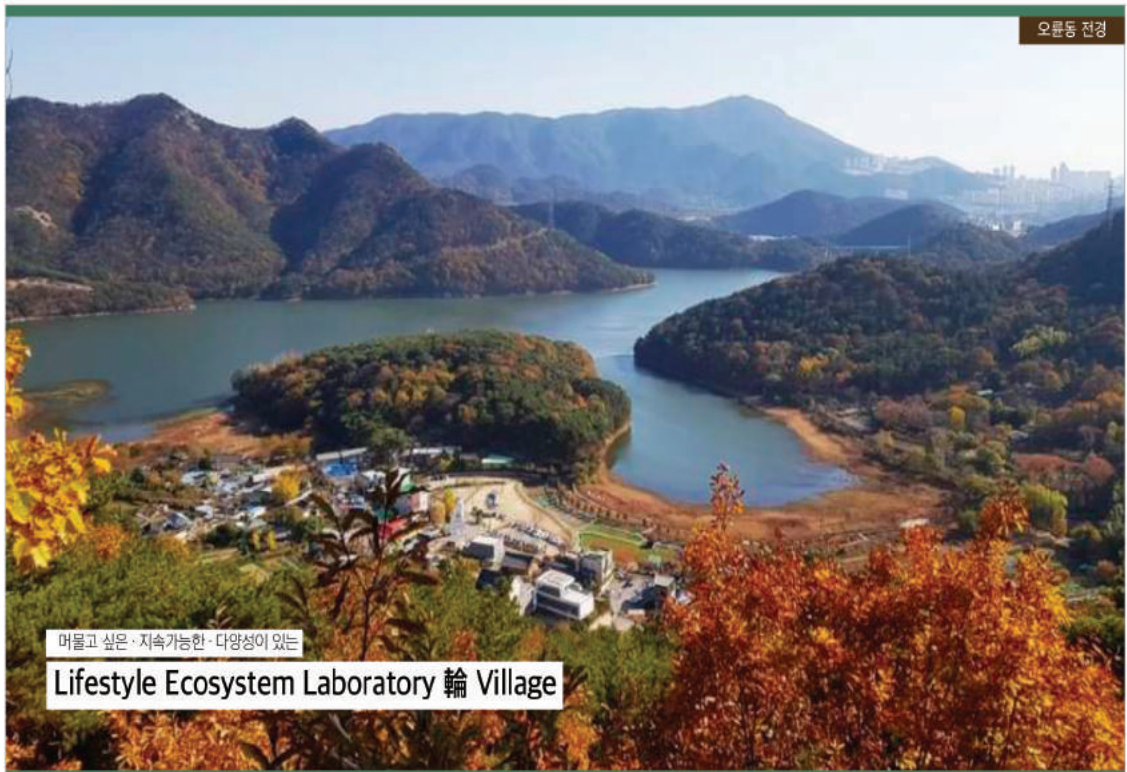
출처 : 손지현, 「서브컬처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통한 도심 내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적용에 관한 연구 : 독립문화공간 아지트(AGIT)를 중심으로」(석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어메니티(amenity) : 인간의 삶에 필요한 총합적 쾌적함, 도시 선호도의 기준.
**세련디퍼티(serendipity) : 예기치 않은 위대한 발견, 우연한 기회, 새로운 만남.

자생적 문화 / 예술 토양

고유 역사성, 경제성, 개방성, 인구 구성, 지역 특질, 부동산 시장, 법규, 정책, 예술 및 문화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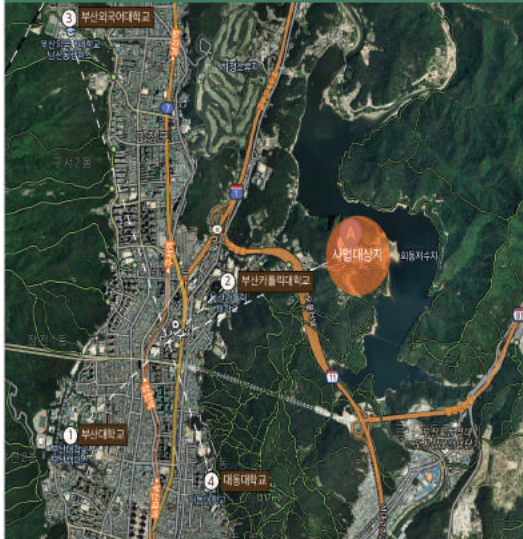


오른동 전경

머물고 싶은 · 지속가능한 · 다양성이 있는

Lifestyle Ecosystem Laboratory 輪 Village

지역정보



부산대학교 외 3개 대학 등 도심 내 대학가와 인접한 환경



회동수원지 인근의 친수환경과 풍부한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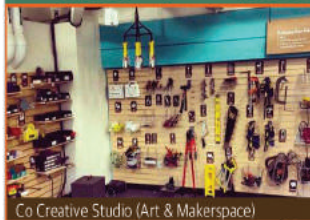
수변산책로 조성

도심 가까이에서 누리는 자연

- 차량 이동 시 도심과 5분거리
- 사람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 프로젝트의 핵심 산책로 조성 지역

- 회동수원지 횡단 보도 연결계획 (2020-2022)
오륜동 회동수원지 - 기장
- 치유숲길 조성계획 (2019-2022)
치유숲길 (2.5km), 숲속 체험장 (모험, 생태놀이) 꽃길 (산수유), 전망대, 테마임도(7km), 풍욕장 총 20km (50리)

상세 공간 정보 - Ryun Studio / 공간구성계획



Co Creative Studio (Art & Maker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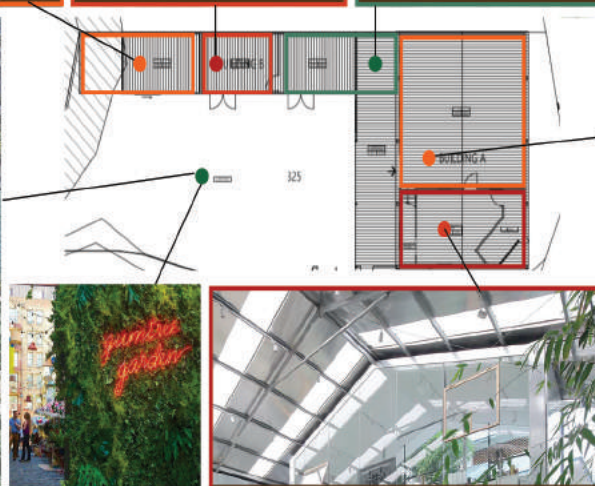
Art X Local Food Shop



도시농업 (버섯배지/수경재배/일렁식물)



Garden (Small wedding / Common / Vegan Market)



2F / Office & Studio



1F / Co Creative Studio (쇼룸/전시/공연)



3F / Co Creative Studio (Lean)



기능성 거점 집약과, 연결을 통한 일일 도보권 내 도시 구성

① 입체적 차원의 도시 패턴 확장

콤팩트시티는 시가지를 가능한 한 평면적으로 확장
하지 않는다.

② 시티 코어(도시중심부)

도시 및 도시권의 활기 있는 중심지

③ 일상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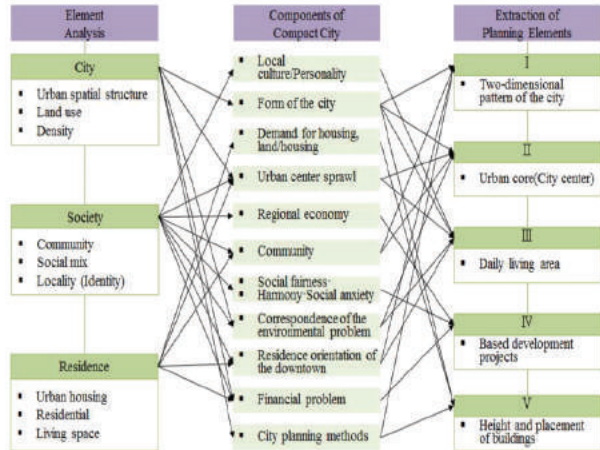
콤팩트시티의 도시공간은 다양한 거주자에 의한 일상 생활권으로
재구성된다. 도보에 의한 지역생활권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유
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거점적 개발사업

시가지의 밀도를 높여 기능을 복합화.

⑤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도시의 미적경관과 지속성을 높여주는 디자인



Vision



Future City Ryun Belt

기능성 Compact City로서의 확장성 구축

Eco Lifestyle Area

@오륜동 일대
친환경 생태 예술 마을

Start-up Laboratory

@장성시장 인근
청년 창업 실험실

Passion Area

@부산대학교 정문 외 지하철역 인근
Club & Fashion Street



상세 공간 정보 - Ryun Village

머물고 싶은 · 지속가능한 · 다양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Life Style 생태계 실험실 輪 Village

• 첫째, 쓰고도 남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포지티브 홀' 구축.

남는 에너지는 인근 전력 공급망에 판다. 개별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자급한다. 전기 수요량이 기존 주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자연 통풍과 단열공법 덕분이다.

• 둘째, 고효율 유기농 식량 생산.

각 가정은 서로 연결된 온실 네트워크에서 과일과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한다. 주민들이 먹는 음식 재료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자급한다.

• 셋째, 재생에너지 사용.

화석연료 대신 오로지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 쓴다. 모든 차량은 전기차다. 전기차는 마을 전체가 공유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 넷째, 물과 폐기물의 재활용.

물 저장 시스템을 통해 빗물이나 생활 하수를 정화처리해 식수나 농업용수로 자급한다.

• 다섯째, 자율적인 공동체 운영.

전기차 충전소, 수경재배 수직농장, 축사, 공동식당, 학습센터, 물 저장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리젠빌리지(ReGen Villages) 샘플



Ryun Studio

#친환경 #도시농업 #Vegan #신소재 #예술 #전시 #캠페인 #커뮤니티 #cocreation

- 부산 오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생태계 실험실의 중심부.
- 상수도 수원지 인근 개발보호구역에 위치 해 있으며 유희화된 버섯창고를 리노베이션 한 생태예술로컬커뮤니티센터.
- pop-up city적 성격을 담은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 전시, 콜라보, 세미나 등이 열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 멤버십 운영 병행

- 특징 : 산책로 옆 버섯창고를 리노베이션 한 공간.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325
- 면적 : 200평형 (1동)



문화평상

이태원길

청년들의
꿈으로 피어나다.

사례발표 2

청년상인, 말하다.

- 양 재 필 대표 / 오!미자네 (청년상인)

청년상인 말하다

- 문경중앙시장 오!미자네 청년몰 -



Contents

- 1 오!미자네 청년몰 소개
- 2 청년몰 주요 컨셉
- 3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의 노력
- 4 선배상인과 상생을 위한 노력
- 5 변해야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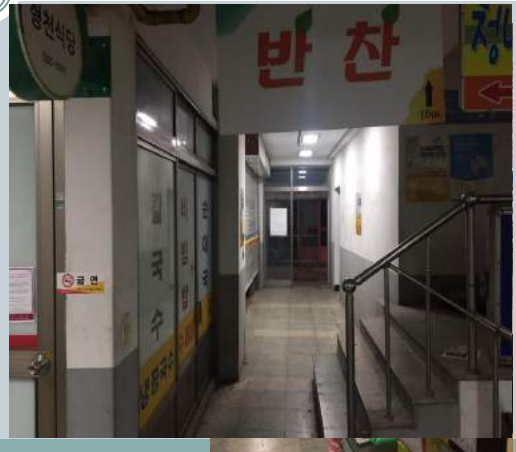
- 문경시 최대의 주거 밀집 지역
- 시장 주변 학교 상권 집중
- 주민생활 근린시장으로 최적의 입지



2) 청년상인 점포 입점 전



 청년몰 1층



2) 청년상인 점포 입점 전



 청년몰 2층



3) 청년상인 점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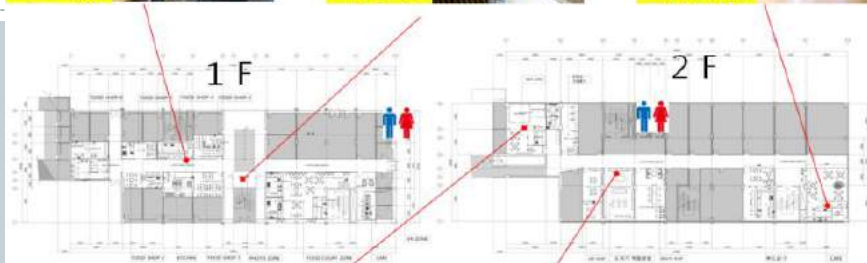


■ 청년상인 점포 9개 입점(1층 5개 / 2층 5개)

- 음식점(5), 미용(2), 특산물판매장(1), 서예(1)
- 2018.10.08 개장



4) 청년몰 자체 보유자원 맵





2 청년물 주요 컨셉



1) 청년물 주요 컨셉



■ 문경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 특화 [오! 미자네 청년물]

- 오미자를 활용한 특화 푸드코트
- 오미자 특산물 판매점



2) 특화된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 구성



- 지역특산물 오미자를 이용한 메뉴 및 상품 제공
- 부담되지 않는 가격의 다양한 먹거리 및 서비스 제공



오미자 환



오미자 비누



오미자 식빵



오미자 소프트
아이스크림



오미자 약돌돈까스



오미자 스테이크

3) 누구나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 고객센터, 오락시설 및 키즈파크 등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 조성
- 방문고객의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시설 조성



4)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 방문고객의 즐길거리를 위해 전통놀이 제공
- 청년몰 내부 포토존 조성으로 외부 홍보 유도



3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의 노력



1) 자치 조직 운영 및 소통강화



- 매주 월요일 청년상인 정례회의 진행
 - 금주 고객 민원 대처
 - 청년몰 자체 행사 기획
 - 점포 운영 어려움 해소

- 매주 월요일 주변 환경정비 실시
 - 개인점포 외 청년몰 주변 환경정비
- 정기적인 청년상인 자체 워크숍 진행
 - 청년상인들과의 소통 및 단합



2) 자체 행사 기획 및 진행



- 정기적인 공동마케팅 및 자체 이벤트 운영
 - 매달 5일 : 5미자 Day 이벤트 (청년몰 이용시 5%+5% 할인 이벤트)



2) 자체 행사 기획 및 진행



- 정기적인 공동마케팅 및 자체 이벤트 운영
- 매달 셋째주 토요일 : 수제맥주 원가판매 행사



2) 자체 행사 기획 및 진행



- 정기적인 공동마케팅 및 자체 이벤트 운영
- 매달 넷째주 토요일 : 청년들 가족 중고장터



2) 자체 행사 기획 및 진행



정기적인 공동마케팅 및 자체 이벤트 운영

-기념일 행사 : 할로윈, 노래대회,댄스대회,크리스마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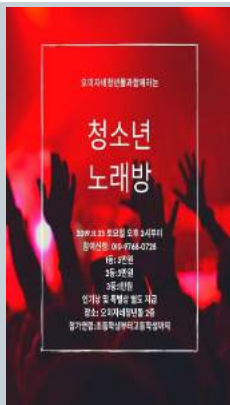


2) 자체 행사 기획 및 진행



정기적인 공동마케팅 및 자체 이벤트 운영

-기념일 행사 : 어린이날, 할로윈, 노래대회,댄스대회,크리스마스 외



3) 대외 홍보 활동(오프라인)



■ 지역축제 참가 및 외부 홍보활동

- 첫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등 먹거리 또는 상품 판매 부스참가
- 인근 번화가 외부 홍보 활동 및 사진촬영 이벤트



3) 대외 홍보 활동(오프라인)



■ 타지역축제 참가 및 외부 홍보활동

- 타지역 축제에 홍보 활동 진행



3) 대외 홍보 활동(온라인)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출연(한국인의밥상,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외)

- 청년들 홍보를 위하여 직접 방송신청
- 촬영 중 청년들의 지속적인 홍보



3) 대외 홍보 활동(온라인)



SNS 및 블로그를 이용한 점포 홍보

- SNS를 통한 이벤트 및 행사 홍보
- 지속적인 홍보로 외부고객 방문유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홍보

- 자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유튜브 채널 게시 후 지속적인 홍보



6) 청년상인 협동조합 조성 및 활동



- 경상북도 청년협동조합 지원사업 선정
- 공동 수익모델 개발 및 판매
- 경상북도 협동조합 협의체 가입

2018년 경상북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면심사 결과 공지

「2018년 경상북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차 대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8. 10. 18.
경상북도지사

□ 2차 대면 심사 결과 (합격자 총 10개 팀)

순번	대표	팀명
1	송○숙	영주 천나초
2	이○영	상상그루
3	양○영	호서재대 청년들
4	김○영	지글이루
5	성○연	물요어썬 뽕스케이
6	정○연	구미청년문화협동조합
7	박○나	합천리움
8	이○영	한마음 치유공간
9	정○훈	다담
10	박○후	순환채

※ 문 : 053-942-4800



4 선배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1) 청년상인들의 나눔봉사



■ 식사 및 음료 나눔

- 떡국, 비빔밥 등 기념일에 맞춰 시장상인들과의 나눔
- 시장방문고객 및 상인들에게 따뜻한 커피 또는 시원한 음료 나눔

■ 기부활동



2) 선배상인과 공동활동



■ 체육대회 및 경창대회참가

- 문경중앙시장의 청년상인으로 기존상인과 체육대회 참가
- 2018년 경창대회 참가 대상수상 이후 합창대회도 준비 중



3) 선배상인과 이벤트 진행



■ 노래자랑 이벤트 & 공동행사 참여

- 9월21일 첫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이벤트 진행 예정
- 노래자랑 상품은 청년상인과 선배상인들의 출자로 진행
- 시장 행사 공동참여로 시장활성화 도모



5 번해야 산다!!



1)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참여



■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의 파머스 마켓 참여



2)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참여



■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마을 조성 사업 참여



3)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 스포츠식품 개발 및 판매 추진



4) 청년상인의 변화



■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된다



감사합니다.



memo





행복북구문화재단

HAENGBOK BUKGU CULTURAL FOUNDATION

‘문화평상’은

옛날 동네 어디든 있는 평상에서 만들어지던 생활 속 문화들을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미로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의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